

재범방지 전략으로서 가족관계회복의 필요성 :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의 이중매개모형*

김정현**, 이수정***, 공정식****

국 | 문 | 요 | 약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범죄행위로 인해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손상된 것에 초점을 맞춰 깨어진 관계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출소자가 사회에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이에 출소자의 가정은 관계회복의 출발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손상된 가족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되며, 사회 내 갈등을 다룸에 있어서 부정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저지하고, 사회에서 수용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관계회복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의 합동결혼식 서비스를 지원받은 150명의 출소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회복의 정도가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은 재범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과횟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가족관계회복이 재범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보고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한 가족관계회복이 직접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재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출소자의 범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족관계회복 방안과 아울러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고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출소자, 재범방지, 가족관계회복, 회복탄력성, 공격성

* 본 논문은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의 2018년도 연구용역사업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주제와 분석방법을 새롭게 설정하여 작성된 2018년도 김정현 석사논문의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공동저자: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I. 서론

일반적으로 사회가 바라는 정의(正義)라는 것은 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가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만 생각되기 쉽다. 원칙과 법 적용에서 징벌은 형사정책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교정이 목적으로 하는 범죄자의 개선·교화에 있어서는 충분요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최준, 2010).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국민안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출소자의 상습적인 재범은 사회문제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가의 범죄예방 정책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들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그 결과 수용시설의 과밀화와 처벌의 비용은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백서(2017)에 따르면, 2016년의 총 범죄자 1,847,605명 중에서 재범자는 882,263명으로 약 47.7%의 재범율을 보여주고, 그 중 강력범죄자의 재범율은 53.1%였다. 범죄백서(2018)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수형자들의 조사결과 45.8~56.6%가 초범이고, 출소 후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되는 비율이 43.4~54.2%로, 결국 약 50%의 출소자들이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은 시설 내 구금형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있다. 법무부(2018)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2013년 47,924명에서 2017년 57,298명으로 19.56% 증가하였지만, 교정본부(2017)의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2013년 45,690명에서 2017년 47,820명으로 4.66%만 다소 증가하였다. 교도소의 과밀화는 범죄자들의 구금확보와 교정교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안성훈, 2017). 이에 수사당국과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고, 교정당국에서는 미결구금자의 수를 줄이고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출소 후 재범의 높은 비율을 고려하여 출소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와 교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 대다수의 출소자들은 사회적응 및 재사회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소자의 관계회복이 주목받고 있다(김정희, 2017). Blad, Hulsman, Uildriks, 그리고 van Mastrigt(1987)는 개인 간의 범죄는 상호 인간관계와 조직, 집단적 특성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갈등의 형태로 정의하며, 범죄의 예방은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갈등의 해소는 상호 간의 개인적 차원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들의 주변사람들과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이다.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과 공포는 서로에게 불신을 가져오고, 지역사회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된다.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들의 회복과 회복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범죄로 얼룩진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 망가진 관계를 원래의 조건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그 관계의 손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Zehr, 2010). 깨어진 관계들 중 출소자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의 정서적,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형태로 출소자의 사회적응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며((La Vigne et al., 2004),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Grier, 2015; Pape, 2014). 또한, 출소자의 재범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갈등이 높은 출소자들이 범죄를 지속한다고 보고되었다(Maruna & Immerigeon, 2013; Nelson et al., 2011). 출소자들의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한 여러 연구를 기반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출소자의 재범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양적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문헌연구(박주상, 2008; 이신영, 2008; 오재돌, 2010)를 통해 개념들을 명확히 해왔고, 질적 연구방법(조희원, 도광조, 2014; 최관, 2015)에 입각하여 출소자의 특성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가족관계회복의 영향을 실증적·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소자들은 범죄전력과 교도소 수감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고,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공단)에서는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관계회복을 위하여 출소자에게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출소자의 재범과 연관성이 밝혀진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회복적 범무보호(갱생보호)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관계회복은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포함하여, 이들의 피해와 욕구, 그리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Zehr, 2010). 출소자의 가족구성원 및 외부의 지지가 많을수록 출소자는 효과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고 위기상황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연희, 2008). 선행연구들은 수형자들이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출소 후에 사회적응력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향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Codd, 2007; Mills & Codd, 2008; Walsh, 2007; Markson, Lösel, Souza, & Lanskey, 2015).

범죄로 인한 교도소 수감은 기혼 수형자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의 문제를 야기하여 가정에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Western, Lopoo, & McLanahan, 2004). 우리나라의 기혼 장기수용자의 절반이상은 이혼상태로, 이들의 상당수 가정들이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신연희, 전영실, 김영식, 2008). 심지어 수형자 가족의 자녀는 부모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과 함께 수치심, 발달장애, 사회적 낙인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Kampfner, 1995). 또한 평범한 또래들에 비해 무단결석이 잦고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되며, 비행과 범죄에 노출 빈도가 높게 된다(Phillips et al., 2002; 박선영, 신연희, 2012). 이렇듯 수감으로 인해 가족관계는 해체되고, 수형자들이 출소 후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승만, 신연희, 2005). 즉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형자는 가족과 멀어지면서 가족관계가 단절되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출소 후 그들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고,

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만든다.

이렇듯 수감으로 인해 파괴된 가족관계는 출소 후 재범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출소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로써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는 출소자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내 재통합과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합동결혼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 약 2,500건 이상의 합동결혼식이 진행되어 왔다. 공정식(2018)의 연구에 따르면, 출소자에 대한 합동결혼식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안정감을 주어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며, 출소자에게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강화시켜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역사회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출소자의 가족관계회복은 범죄로 인하여 해체되거나 망가진 가족관계에서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Naser & La Vigne, 2006).

출소자들이 범죄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힘으로써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이 널리 주목받고 있다(Visser & Trais, 2003). 오래전부터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고, 그 중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거나,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논의할 때, 공통적으로 개인의 회복탄력성은 선천적인 기질(temperament)을 포함하고, 더욱이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 개인 내적 특징으로 보고된다(Dyer & McGuinness, 1996; Smith, 2006; 김혜성, 1998; 홍은숙, 2006).

한수연과 정구철(2013)의 연구에 따르면, 수형자가 출소 직후 변화된 사회 내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은 회복탄력성에서 나오고, 우발적인 감정에 의한 공격성을 통제함으로써 재범의 방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감횟수가 많아질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는 재범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동훈, 2014).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해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자기수용과 자기 확신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으로 홍은숙(2006)은 내적 자원(원인분석능력, 감정통제능력, 충동통제능력, 생활만족능력, 낙관성)과 외적 자원(가족관계, 대인관계, 지역사회지지)으로 설명하였다. 회복탄력성을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고 개인의 내적 자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질서한 환경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적 자원의 활용만으로는 주변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개인의 측면을 간과하는 면이 크다.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 회복탄력성은 그들을 보호하는 환경 속에서 강화된 내적 자원이 갖추어져 있을 때,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Masten & Coatsworth, 1998). 그러므로 출소자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것은 이들의 내적 자원의 강화와 더불어 의존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대인관계를 제공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기본적인 생존과 번식, 나아가 건강과 행복은 인류 역사상 혼자 힘으로 성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 왔다(Leary & Baumeister, 1995). 이러한 맥락에서 분노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역설적인 반응이다. 건전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법 내에서 이를 해결하여 관계를 유지하지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일탈적 방법을 행함으로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다. 소외감은 사회적 관계형성의 실패로부터의 좌절이며, 이로 인해 배제된 사람들은 어딘가로 소속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Buckley et al., 2004; Kirkpatrick & Ellis, 2001; Twenge et al., 2001; Warburton et al., 2006)은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한 사람들보다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 화풀이 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향을 띤다고 보고하였다.

출소자들은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사회적 낙인과 배제를 경험하며(배임호, 2013), 이로 인해 타인에 대한 적대심과 공격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DeWalt et al., 2009). 다른 대인관계에서 보다 가족관계에서의 거부는 출소자들의

공격성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Leary, Twenge, & Quinlivan, 2006). 가족관계에서 나타난 공격성은 가족구성원과의 갈등을 야기하여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하고, 훈육에서의 분노표출은 자녀가 더 공격적이고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원인이 된다(Mckay, Fanning, Paleg, & Landis, 1997).

공격성의 표출은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상처를 입혀 타인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고, 이는 내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Daffenbacher et al., 1996). 개인마다 공격성을 표출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다르나, Berkowitz(1993)은 주로 적대적 태도 다음의 공격성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재범을 예측하고 방지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정 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출소자의 재범예측요인을 메타분석한 Gendreau, Little, 그리고 Goggin(1996)의 연구에 따르면, 재범과 관련된 131개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출소자가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고, 위기를 극복하는 역량이 부족하며, 평상시 공격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출소자의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소자들이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Adalist-Estrin & Mustin, 2003; Mills & Codd, 2008). 또한, 가족관계의 회복은 출소자가 사소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잉행동, 반항행동, 공격행동으로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닌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Eron & Huesmann,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한 합동결혼식사업이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공격성을 낮춰 재범의 방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출소자의 가족관계회복이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협조 하에서 최근 5년(2013~2017)간 공단으로부터 합동결혼을 지원받고 현재 보호 중이거나 보호 종료된 출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1개 지소 중 17개 지소(서울, 인천 경기, 경기남부,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서울북부, 경남서부)에서 이루어졌으며, 합동결혼지원 서비스 대상자 15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공단직원들에게 설문조사의 목적, 설문방법, 연구윤리 준수사항을 교육 후 직원들이 설문에 동의한 보호대상자 혹은 보호종료자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가. 독립변인: 가족관계회복

범죄로 인해 손상된 가족관계가 합동결혼식을 계기로 출소자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가족구성원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식, 2018). 이에 가족관계에서 회복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empel 등(1985)이 개발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뢰’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회복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의존성(Dependability)’, ‘예측성(predictability)’, ‘믿음(Faith)’을 하위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총 1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자기보고식 응답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가족관계회복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배우자와의 관계회복과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각각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배우자 관계회복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45였으며, 자녀 관계회복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35로 나타나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나. 매개변인I: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함에 있어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신우열(2009) 등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고, 이는 출소자가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27문항의 전체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50로서 높게 나타났다.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의 분포 또한 .857~.909로 나타나 각 척도의 신뢰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 매개변인II: 공격성

출소자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고경봉과 박중규(2005)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들의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분노대응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19개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자기보고식 응답을 하며, 하위척도로는 행동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억압, 문제해결적 대응, 긴장완화적 대응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공격성이 출소자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동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공격성 변인을 구성하였으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α 는 .925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종속변인: 출소 후 재범횟수

본 연구에서 출소 후 재범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수감시설로부터 나온 후 벌금형 이상의 범죄 횟수와 범죄 유형을 자기응답식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소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이 범죄횟수와 범죄유형에 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범죄 유형의 경우 죄명이 다양하고 출소자가 정확한 죄명을 보고하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출소 후 재범횟수를 단일척도로 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기술 통계치와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인 출소자의 가족관계회복과 재범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설정된 변인들이 연구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의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연구모형의 정당성을 위해 내재적 모형(nested model)으로 대안모형I, 대안모형II를 제시하고 각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홍세희(2000)가 제시한 χ^2 검증,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 TL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GFI, RMSEA를 참고하였다. 최종모형 선택에 있어서 모형간 비교시 유용한 AIC 지수와 SRMR를 평가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하여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N=150)

구분	빈도(명)	%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134	89.3	-	-
	여성	16	10.7		
연령	20대	5	3.3	43.73	.879
	30대	15	10.0		
	40대	59	39.3		
	50대	61	40.7		
	60대 이상	10	6.7		
최종학력	무학	2	.3	-	-
	초졸이하	7	4.7		
	중졸이하	36	24.0		
	고졸이하	88	58.7		
	대졸이상	17	11.3		
월수입	199만원 이하	72	48.0	1.73	.895
	200-299만원	56	37.3		
	300-399만원	15	10.0		
	400-499만원	4	2.7		
	500만원 이상	3	2.0		
전과횟수	1	74	48.7	2.71	2.63
	2	17	10.0		
	3	21	14.0		
	4	10	6.0		
	5회 이상	28	18.7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수는 150명이며,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표 1>과 같다. 교정본부(2018)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12월 기준 교정시설의 성별 인원은 남성이 51,425명(93.2%)이며, 여성은 3,773명(6.8%)을 차지하였다. 또한 수형자의 연령별 인원은 40대가 26.9%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5.8%, 30대는 20.9%, 20대는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남성이 89.3%를 차지하고 40~50대가 8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소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최종학력은 고졸이하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학자도 2명이 존재하였다. 이들의 가정 내 월수입은 199만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8.0%를 차지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전과 횟수는 1건이 48.7%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으나, 5회 이상인 경우도 18.7%로 범죄의 상습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가족관계회복의 평균은 3.54(S.D=.502), 회복탄력성의 평균은 3.41(S.D=.584), 공격성의 평균은 1.87(S.D=.812), 그리고 출소 후 재범횟수의 평균은 .30(S.D=.766)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West, Finch와 Curran(1995)은 왜도는 절대

<표 2> 주요변인에 대한 정규성 검증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관계회복						
배우자관계회복	2.12	5.00	3.79	.709	.017	-.778
자녀관계회복	2.06	5.00	3.69	.674	.087	.634
회복탄력성						
통제성	2.00	5.00	3.43	.657	.347	-.511
긍정성	1.78	5.00	3.41	.669	.285	-.146
사회성	2.22	4.89	3.42	.585	.232	-.663
공격성						
행동적공격성	1.00	5.00	1.72	.888	1.106	.457
언어적공격성	1.00	5.00	2.02	.827	.722	.205
출소 후 재범횟수	0.00	3.00	.29	.698	2.655	6.563
log_출소 후 재범횟수	0.00	.139	.16	.371	1.968	3.242

값 '2'와 첨도는 절대값 '7'을 넘기지 않아야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출소 후 재범횟수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초과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MOS 구조방정식을 이용할 때는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이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해야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따라서 출소 후 재범횟수 변인에 Log를 취해 변수를 조작하였다. 그 결과 절대값을 기준으로 변인의 왜도는 .017~1.968의 분포를 첨도는 .146~3.242로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상관관계 계수를 절대값으로 비교하였을 때, 최대값이 $r=.519$ 로서 $r=.7$ 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먼저 가족관계회복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502, p<.001$). 다시 말해서 가족관계회복이 잘 이루어질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족관계회복과 공격성은 부(-)적 연관이 있고($r=-.194, p<.05$), 회복탄력성과 공격성 또한 부(-)적 상관관계($r=-.519,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의 악화와 회복탄력성의 저하는 공격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공격성과 출소 후 재범횟수간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할수록 재범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표 3> 주요변인들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1	2	3	4
1. 가족관계회복	1			
2. 회복탄력성	.502***	1		
3. 공격성	-.194*	-.519***	1	
4. log_출소후재범횟수	-.099	-.091	.265**	1

* $p<.05$, ** $p<.01$, *** $p<.001$

4. 측정모형 검증

가.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관계회복, 회복탄력성, 공격성, 출소 후 재범횟수의 변수들을 이용한 경로를 설정하기 전 잠재변수들이 이론적 배경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모형 적합도는 $\chi^2=11.790(DF=15)$, 유의도 $p=.695$ 로 영가설을 지지하며, χ^2/DF 가 .786로 3보다 작아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지수들(GFI=.981, CFI=1.000, TLI=1.009, RMSEA=.000) 또한 우수하게 나타났다.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요인적재량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모든 변인의 요인 적재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출소 후 재범횟수 변인은 단일지표로 측정되었다. 배병렬(2017)에 따르면, 단일지표의 경우 신뢰도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α 값을 .7로 추정하여 $[\theta = (1-\alpha)\sigma^2, \lambda=1]$ 의 방법을 통해 불편추정치를 구한 후 오차를 .346으로 설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도록 제시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C.R.
가족관계회복	배우자관계회복	1.000	.821	
	자녀관계회복	1.032	.882	7.912***
회복탄력성	통제성회복탄력	1.000	.910	
	긍정성회복탄력	.947	.846	13.992***
	사회성회복탄력	.840	.858	14.335***
공격성	행동적공격성	1.000	.917	
	언어적공격성	.878	.865	10.249***
출소 후 재범횟수	출소이후범죄횟수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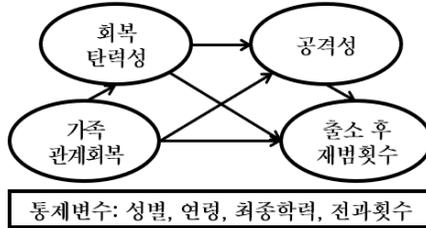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나. 대안모형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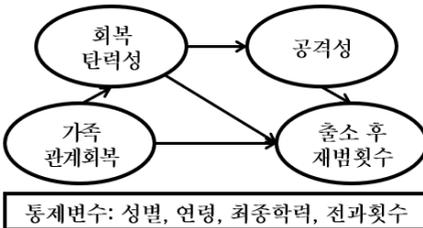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을 매개하여 출소 후 재범횟수에 미치는 연구모형을 설정(참조: <그림 1>)하였다. 또한 연구모형과 모형 적합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대안모형을 제시하였다. 대안모형I로서 회복탄력성을 부분매개로 하여 출소 후 재범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을 <그림 2>에 나타내었고, 대안모형II로서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이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I, 대안모형II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χ^2 은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며, 표집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수 또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모형 χ^2 의 유의도가 .05보다 크게 나와 적합한 연구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지수들 모두 GFI, CFI, TLI, .9 이상 RMSEA가 .5 이하로 모형이 적합하게 나타났다. 최종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모델 간 비교 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SRMR값과 AIC값을 비교하였다. Schumacker과 Lomax(1996)에 따르면 간명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χ^2 의 통계량과 추정모수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지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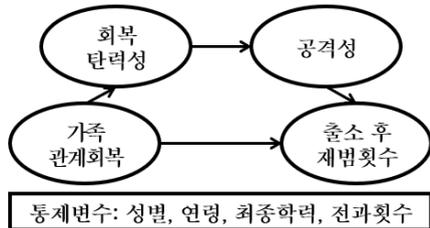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대안모형I



<그림 3> 대안모형II



두 개 이상의 대안 모형들을 설정하여 비교하는 경우 유용하며, 더 낮은 AIC지수 값을 갖는 모형이 더 나은 모형을 의미한다. 즉, SRMR은 .1보다 작을 때 적합성이 양호하며, AIC의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다.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의 SRMR과 AIC의 수치가 대안모형I, 대안모형II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최종 분석을 위한 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타당하여, 다음의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더욱이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도 연구모형이 분석을 위한 최종모형으로 적합하였다.

〈표 5〉 연구모형과 대안모형, II의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p	GFI	CFI	TLI	SRMR	RMSEA	AIC
연구모형	42,003	39	.342	.958	.996	.992	.0353	.023	120,003
대안모형I	46,619	40	.229	.954	.991	.985	.0409	.032	122,265
대안모형II	47,487	41	.225	.954	.990	.985	.0422	.033	121,487

5. 구조모형 분석결과

가.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연구대상자의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출소 후 재범횟수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표 6>과 같다. 측정변인들의 full-path 구조모형을 형성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에서 다른 경로들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가족관계회복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1.608($p=.108$), 회복탄력성이 출소 후 재범횟수에 미치는 영향이 1.316($p=.18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자들이 석방 후 그들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과력 등의 정적인 변인들이 재범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출소자의 가족관계 악화가 그들의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행동적이나 언어적으로 공격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재범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다.

〈표 6〉 연구모형의 요인들 간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추정치	표준오차	C.R
가족관계회복	→	회복탄력성	.738	.583	.116	6.370***
회복탄력성	→	공격성	-.929	-.684	.148	-6.280***
공격성	→	출소후재범횟수	.293	.491	.105	2.786**
가족관계회복	→	공격성	.314	.182	.184	1.703
회복탄력성	→	출소후재범횟수	.218	.269	.176	1.238
가족관계회복	→	출소후재범횟수	-.293	-.285	.192	-1.524
통제변수						
성별	→	출소후재범횟수	-.234	-.149	.201	-1.163
연령	→	출소후재범횟수	.035	.064	.069	.506
최종학력	→	출소후재범횟수	.066	.105	.081	.813
전과횟수	→	출소후재범횟수	.059	.275	.029	2.064*

* $p<.05$, ** $p<.01$, *** $p<.001$

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각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함으로써 각 요인들이 출소 후 재범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은 연구모형의 경로를 경로계수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비표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로 나누어 정리하고 간접신뢰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각 변인별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가족관계회복이 공격성에는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지만 회복탄력성을 통한 간접적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출소 후 재범횟수로 가는 간접적 경로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의 악화가 회복탄력성을 감소시키는 영향력은 크지만,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범죄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공격성을 띄게 되면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족관계회복은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회복탄력성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효과분해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95% CI [하한, 상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A → B		.738**		.583			
B → C		-.929**	-.686**	-.684	.399		[-1.049, -.384]
B → C		-.929**		-.684			
C → D		.293**	-.273**	.491	-.336		[-.536, -.057]
A → B		.738**		.583			
B → D	-.241**	.218	.161	.269	.157		[-.124, .517]
A → C		.314	.092	.182	.049		[-.023, .282]
C → D		.293**		.491			
A → B		.738**		.583			
B → C		-.929**	-.201**	-.684	-.196		[-.437, -.040]
C → D		.293**		.491			
A → D		-.293	-	-.28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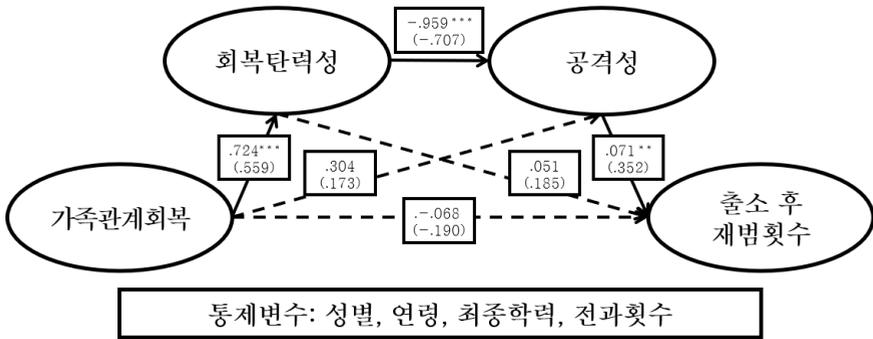
주)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해당됨. ** $p < .01$.

A=가족관계회복, B=회복탄력성, C=공격성, D=출소 후 재범횟수.

영향을 미치며, 이 연속된 순서를 토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을 결과를 통해 파악하였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공격성을 높여 재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간접경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붓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신뢰구간이 -1.049에서 -0.384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공격성을 매개로하여 출소 후 재범횟수에 미치는 간접효과와 신뢰구간이 -0.536에서 -0.057로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을 순차적으로 매개로하여 출소 후 재범횟수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였다. 이는 연속다중매개모델에서 간접효과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정 변수와 관련된 간접효과와 유의도를 얻기에 유용하다. 그 결과 또한 신뢰구간이 -0.437에서 -0.04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림 4〉 최종모형 분석결과



주) 박스 안의 값은 비표준화추정치이며, 그 아래 괄호 안의 값은 표준화추정치를 제시하였다. 실선은 $p < .5$ 로 유의미한 경로를 나타낸 것이며, 점선은 $p > .5$ 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 $p < .01$, *** $p < .001$

가족관계회복이 출소 후 재범횟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 공격성, 출소 후 재범횟수로 이어지는 경로가 완전매개모형임을 검증하였다. [그림 4]는 연구모형의 완전매개경로를 요약한 그림이다.

V. 결론 및 제언

일반적으로 출소자의 공격성향은 높고 이들의 전과 횟수가 많을수록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속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출소자는 회복탄력성이 낮고 공격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으나, 모든 범죄자들이 상습적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지속적인 범죄의 유혹에 이르는 경로를 밝힘으로써 범죄의 중단을 위한 개입의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합동결혼식을 통한 출소자의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 공격성,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재범방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가족관계회복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과 재범횟수와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들이 재범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변인들은 재범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배경적인 역할을 하고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들의 재범예측 요인들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전과횟수는 이들의 재범예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과가 재범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보고하는 선행 연구들(Scarr, 1973; 김지연, 김지영, 2015; 이동원, 2003; 황지태, 2004; 박지선, 안현미 & 김지영, 2017)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가족관계회복과 회복탄력성은 정(+)적 관계가 나타났고, 공격성과 출소 후 재범횟수와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소 후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출소자들이 사회적 관계도 잘 형성한다는 선행연구들(Fishman, 1986; La Vigne et al, 2004; Mills and Codd, 2008; 공정식, 2018)과 맥락을 같이하여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동기는 공격적인 성향을 감소시키고 재범을 감소시키는데 강력한 요인임을 보고되고 있다(Bales & Mears, 2008). 따라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변인들의 관계가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이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가족관계회복이 재범횟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을 연속적인 경로로 설정하고 각 경로를 연결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모형들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이 가장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경로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가족관계회복이 공격성과 재범횟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는 대치되는 결과였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이어지는 경로가 아닌 단순한 관계만을 규명했다는 것에서, 본 연구와 대별되는 점이 존재한다. 즉,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 공격성, 재범횟수와 연관이 있지만, 이들을 경로의 관계에서 설명하고자 할 때 가족관계회복이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회복탄력성은 공격성과 연관이 있으며, 공격성은 재범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연

속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긴장이론(Agnew, 2001)이 설명하는 긴장상태와 스트레스가 분노, 좌절, 불행감을 유발하고 그 중 분노는 범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한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가족관계의 악화는 긴장적 상황을 유발하고 낮은 회복탄력성은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켜 공격성이나 범죄의 형태로 발현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출소자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수형자의 사회생활과 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내 처우로 귀휴제도와 가족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보부의 귀휴실시 현황(범죄백서, 2017)에 따르면, 매년 1,000여명의 인원에 대해 실시중이고 10년간 위반자가 2명이었다. 5만 명에 달하는 수용자의 현실과 비교하였을 때, 시설 내 처우 중 가족지원사업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소 후에는 한국법무복지보호공단에서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정착을 위해 대표적인 추진사업으로 합동결혼식과 가족희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기존의 출소자 중심의 지원에서 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건강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출소자의 자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매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 출소자 자녀의 약 2%미만에게만 지원이 되고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이인곤, 2015; 공정식, 2018). 따라서 출소자가 가정으로의 성공적인 안착과 범죄의 대물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하여 자녀 등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제공을 제안한다. 낮은 회복탄력성은 이들의 부정적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대인관계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이들의 재사회화의 위험요인이 된다. 하지만 출소자 또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향상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 개발된 바가 없다. 수형자에 대하여 심리치료가 실시되고 있지만, 특정사범인 성폭력, 마약, 알코올, 아동학대, 무동기 범죄자들에게 맞춤형 심리치료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반적인 심리치료가 다양한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 후에는 공단에서 자발적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효과성이 일부

김중(이자희, 2010; 김선희, 최병욱, 2012)되고 있지만, 회복탄력성의 증대와 같은 근본적인 접근보다 생활고 등의 현실의 문제해결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출소자들은 일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느끼고 취업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보고하였지만(오재돌, 2010), 출소자들의 대다수는 취업을 한 경우에도 높은 이직률과 중단률을 보이고 있다(임봉기, 2010). 따라서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유지를 위해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앞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우선적 또는 동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격성(행동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을 긍정적 대응(문제해결적 대응, 긴장완화적대응)으로 변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 적절한 분노표현방식은 자신의 감정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타인을 비난하기 보다 문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해결을 가능토록 한다(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국외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갈등에 대한 접근법과 분노를 낮추는 방안을 학습하도록 하여 임상 및 교정의 측면에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Smith, Smith & Beckner, 1994; Mela et al., 2008). 이러한 분노조절 프로그램들은 인지행동기술을 향상시키고자 분노에 대한 주의력, 구조 조정, 의사소통 기술, 사고의 전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Gondolf & Russell, 1986). 이러한 기술은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함께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교육은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다소 부족하였던 출소자의 재범방지에 대한 경로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기존의 재범과 밀접한 연관성을 입증한 가족관계를 회복탄력성과 공격성을 연쇄적으로 매개하여 복합적인 경로로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어 학술적,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출소자의 가족관계회복을 조작화 하는데 있어서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못하고 합동결혼식을 지원 받은 것이 가족관계를 회복하였다고 가정하였고, 종속변인으로 활용된 재범의 경우 설문조사 시점까지의 횡수이므로, 재범이 가족관계회복, 회복탄력성, 공격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못하였다. 또한 한국법무복지공단의 출소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접근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이들의 자발적 참여로만 연구가 실시되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특징은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후속연구로서 종단연구를 통해 출소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출소 후 재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출소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포괄적인 출소자의 특성을 연구하여 재범예측과 방지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7). 경찰백서, 경찰청.
- 고경봉 · 박중규. (2005). 분노대응 척도의 개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4(4), 477-488.
- 공정식. (2018). 공단 합동결혼지원 대상자 가족들의 현황 및 실태조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구용역.
- 교정본부. (2018). 교정시설수용현황 통계자료.
- 김선희 · 최병욱. (2012). 출소자를 위한 상호통섭적 인문치료의 이론적 접근. 인문과학연구, 32, 403-430.
- 김승만 · 신연희. (2005). 장기수형자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김정희. (2017).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교정, 그 전제적 탐색: 가족인식에 대한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1권 제2호, 69-102.
- 김지연 · 김지영. (2015). 강도범죄의 장소와 수법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7(3), 71-96.
- 김혜성. (1998). 회복력(resilience) 개념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8(2), 403-413.
- 박선영 · 신연희. (2012). 수형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주상. (2008). 갱생보호 처우에 있어서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19집, 189-208.
- 박지선 · 안현미 · 김지영. (2017). 범죄자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른 강도 범죄의 특성. 교정연구, 27(3), 113-133.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도서출판: 청람.
- 배임호. (2013).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60호, 113-134.
- 법무부. (2018).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 신연희 · 전영실 · 김영식. (2008). 수형자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 구, (40), 203-225.
- 신우열 • 김민규 •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안성훈. (2017).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교정연구, 27(1), 55-93.
- 오재돌. (2010). 수용자 직업훈련과 출소자 취업연계에 관한 소고. 교정담론, 4(2), 23-34.
- 이동원. (2003).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범행의 발전양상과 재범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15(2), 335-366.
- 이동훈. (2014).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모델 정립과 모델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
- 이신영. (2008).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38호, 139-161.
- 이인곤. (2015).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복지)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14(3), 153-180.
- 이자희. (2010). 갱생보호대상자의 재사회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봉기. (2010). 수용자의 출소 후 사회복귀경험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희원 • 도광조. (2014). 출소자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복지연구, 51-81.
- 최관. (2015). 출소자의 취업경험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낙인, 차별, 편견, 인권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9(2), 145-174.
- 최준. (2010). 교정의 목적과 수형자의 권리. 인권복지연구, 1-28.
- 통계청. (2018). e-나라지표.
- 하워드 제어, (손진 옮김). (2012).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 한수연 • 정구철. (2013). 남성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8(4), 763-78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홍은숙. (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황지태, (2004). 강·절도의 범행대상 선택에 관한 연구.
- Adalist-Estrin, A., & Mustin, J. (2003). *Responding to children and families of prisoners: A community guide*. Family & Corrections Network.
- Agnew, R. (2001). Building on the foundation of general strain theory: Specifying the types of strain most likely to lead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4), 319-361.
- Bales, W. D., & Mears, D. P. (2008). Inmate social ties and the transition to society: Does visitation reduce recidivism?.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5(3), 287-321.
- Berkowitz, L. (1993). *Agression: Its cause,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lad, J. R., Hulsman, L., Uildriks, N. A., & van Mastrigt, H. (1987).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s a Social Problem an Abolitionist Perspective*. Juridisch Instituut, Erasmus Universiteit.
- Buckley, K. E., Winkel, R. E., & Leary, M. R. (2004). Reactions to acceptance and rejection: Effects of level and sequence of relational eval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1), 14-28.
- Codd, H. (2007). Prisoners' families and resettlement: A critical analysis. *The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6(3), 255-263.
- Daffenbacher, J.L., Oetting, E.R., Thwaites, G.R., Lynch, R.S., Baker, D.A., Thaker, S., & Eisworth-Cox, L. (1996). State-Trait anger theory and the utility of the Trait Anger Scal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43(2), 131 - 148.

- DeWall, C. N., Twenge, J. M., Gitter, S. A., & Baumeister, R. F. (2009). It's the thought that counts: The role of hostile cognition in shaping aggressive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1), 45.
- Dyer, J.G., & McGuinness, T.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 276-282.
- Eron, L. D., & Huesmann, L. R. (1984). The relation of prosocial behavior to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psychopathology. *Aggressive Behavior, 10*(3), 201-211.
- Fishman, L. T. (1986). Repeating the cycle of hard living and crime: Wives' accommodations to husbands' parole performance. *Fed. Probation, 50*, 44-54.
- Gendreau, P., Little, T., & Goggin, C. (1996). A meta 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Criminology, 34*(4), 575-608.
- Gondolf, E. W., & Russell, D. (1986). The case against anger control treatment programs for batterers. *Education Wife Assault*.
- Grier, T. (2015). *Coming home: Analysis of the reintegration experiences of ex-offenders*, Doctoral dissertation, Wilmington University.
- Kampfner, C. J. (1995).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s in children of imprisoned mother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89-100*.
- Kirkpatrick, L. A., & Ellis, B. J. (2001).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self-evaluation and self-esteem. *The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 411-436.
- La Vigne, N., Visser, C. A., & Castro, J. (2004). *Chicago prisoners' experiences returning home*. D.C.: Urban Institute Press.
- Leary, M. R., & Baumeister, R. F.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Leary, M. R., Twenge, J. M., &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11-132.
- Markson, L., Lösel, F., Souza, K., & Lanskey, C. (2015). Male prisoners' family relationships and resilience in resettlement.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5*(4), 423-441.
- Maruna, S., & Immarigeon, R. (Eds.). (2013). *After crime and punishment*. Routledge.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 Masten, A.S., & Coatsworth, J.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s: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cKay, M., Fanning, P., Paleg, K., & Landis, D. (1997). When Anger Hurts Your Kids: A Parent's Guide. *Adolescence, 32*(128), 1001.
- Mela, M., Balbuena, L., Randy Duncan, C., Wong, S., Gu, D., Polvi, N., & Gordon, A. (2008). The STAXI as a measure of inmate anger and a predictor of institutional offending.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19* (3), 396-406.
- Mills, A. & Codd, H. (2008). Prisoners' Families and Offender Management: Mobilizing Social Capital. *Probation Journal, 55*, 9-24.
- Naser, R.L., & La Vigne, N.G. (2006). Family support in the prisoner reentry process: Expect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43*(1), 93-106.
- Nelson, M., Deess, P., & Allen, C. (2011) The first month out: Post-incarceration experiences in New York City. *Federal Sentencing Reporter, 24*(1), 72-75.
- Pape, C. M. (2014). *An exploratory analysis of ex-offender employment in a non-urban setting*. Doctoral dissertation,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 Phillips, S., Burns, B., Wagner, R., Kramer, T., & Robbins, J. (2002). Parental incarceration among adolescents receiving mental health services. *Journal*

-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 385-399.
- Rempel, J. K., Holmes, J. G., & Zanna, M. P. (1985).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95.
- Scarr, H. A. (1973). *Patterns of Burglary*,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Law Enforcement and Criminal Justice.
-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mith, L. L., Smith, J. N., & Beckner, B. M. (1994). An anger-management workshop for women inmates. *Families in Society*, 75(3), 172.
- Smith, T.W. (2006). Personality as risk and resilience in physical health. *A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15(5), 227-231.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3), 207-232.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 Visher, C. A., & Travis, J. (2003). Transitions from prison to community: Understanding individual pathway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1): 89 - 113.
- Walsh, F. (2007). Traumatic loss and major disasters: Strengthening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e. *Family process*, 46(2), 207-227.
- Warburton, W. A., Williams, K. D., & Cairns, D. R. (2006). When ostracism leads to aggress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ntrol depriv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2), 213-22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Western, B., Lopoo, L., & McLanahan, S. (2004). Incarceration and the bonds among parents in fragile families. *Imprisoning America: The social effects of mass incarceration*, 21-45.

Need for Family relationship restoration as a strategy for
prevention of recidivism :
focusing on resilience and aggression*

Kim, Jeong-hyeon** · Lee, Soo-jung*** · Gong, Jung-sik****

Rather than emphasizing punishment only to prevent recidivism of offenders, it is more important for criminals to restore their broken relationship by focusing on their social relationships being compromised. Therefore, the family of the ex-prisoner can be recognized as a starting point of the relationship recovery. Restoring trust among family members damaged by crime is an important basis for restoring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preventing negative behavior in dealing with conflicts in society, and leading to change in actions acceptable to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egree of family relationship restoration on the prevention of recidivism by using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and aggression in 150 ex-prisoners who was supported by a group wedding service from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and final educational attainment were not related to recidivism, but the number of criminal record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previous study, it was shown that family relationship plays a strong role in predicting reoffending, whereas in this study, it is shown that family rehabilitation plays a role of preventing replay by mediating resilience and aggression sequentiall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to increase resilience and reduce aggress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cial relations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restoring family relations in

* This work was written by utilizing a dissertation by Jeonghyeon Kim in Kyonggi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Forensic Psychology of Graduate School in Kyonggi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in Kyonggi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Industrial-Educational Cooperation in Kyonggi University.

order to prevent recidivism.

❖ Key words : Ex-prisoner, Prevention of recidivism, Family Relationship Restoration, Resilience, Aggression

투고일 : 11월 30일 / 심사일 : 12월 14일 / 게재확정일 : 12월 20일